



서예·전각가 여원구 선생



7가지 서체로 쓴 반아심경. 왼쪽부터 목간·초서·호태왕비·행서·해서·에서·전서체.

마음을 한 곳에 모은다. 흰 종이에 붓으로 점 하나를 찍고 획 하나를 긋는다. 검은 필선은 흰 여백과 어우러져 글자가 되고, 우주법계가 그 안에 담긴다. 한번 그으면 돌이킬 수 없는 붓 획은 우리네 인생과도 닮았다.

그래서일까. 평생 글씨와 함께 했고 여초(如初) 김응현 선생의 제자로 모든 서체를 두루 섭렵, 서예와 전각의 대가로 꼽히는 구당(丘堂) 여원구 선생(72)이건만 글씨를 쓰려면 여간 조심스럽지 않다. "쓰면 쓸수록 어려운 게 글씨야. 부족함을 알게 되거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불공을 올리는 그런 심정으로 평생 갈고 닦아야 방명록에 제 이를 석자 큰 부끄러움 없이 적을 수 있지."

겸손하게 말하지만 그는 분명 이 시대 최고의 서예·전각가다. 1979년 이미 '노력과 천질(天質)로 글씨의 강(剛)과 유(柔)를 성취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는. 1999년 <훈민정음>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의 글자체와 훈을 담아 나라 도장 국새를 만들었고,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훈민정음> 판본체의 서체에 충실하며 천(天)·지(地)·인(人) 3재(三才)를 모두 표현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살려 단순하고 명쾌하며 정중함과 부드러움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이 낙점 사유.

최근 작품 <반아심경> <금강경> 병풍, <반아심경>과 <전수경> 전각 등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서도(書道)에 담고 있다. 10개월이 걸려 제작한 <금강경> 병풍이나 서체별로 7벌의 <반아심경>을 쓰고, 네 개의 틀에 새겨낸 것도 독특한 그의 불심 덕에 가능했다.

경기도 양평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며 한학과 서예에 익숙한 선생이었지만 본격적으로 서예가의 길로 접어든 건 마흔이 다 돼서다. 새로운 생활을 찾아 상경한 것이 계기였다. 처음 보금자리를 튼 곳은 서울 보문동 산자락의 판자집.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유지가 쉽지 않았다. 이 곳에서 선생은 어느 탁발승의 권유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법당에 가서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더라고. 그 뒤론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직업도 구하고 서에도 시작할 수 있었어. 그게 다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생각해."

직장에서 그가 맡았던 일은 경리 업무. 서예와는 어울려 보이지 않는 일이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다. 그러던 1970년대 초반 동방연서회 여초 선생 문하에 들어갔다. 낮에는 직장



글씨는
그사람의
마음이죠



선생의 정교한 칼끝이 닿으면 방형(方形)의 작은 돌은 사람이 되고 열굴이 된다.

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글씨를 썼다. 밤을 꼬박 새기 일쑤였고, 몸은 지쳐갔다. 하지만 마음만은 피곤한 줄 몰랐다.

"즐거웠지. 퇴근하면 바로 글씨 배우러 가곤 했는데, 어찌나 그 시간이 기다려졌던지 일이 끝나면 담박질 쳐서 가곤 했어."

그 설명할 수 없는 즐거움은 구당 선생을 서예가의 길로 이끌었고, 혼음을 아끼며 몰입해온 수십 년의 세월은 그를 대가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1979년 제1회 동아미술제 미술상을 수상해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 82년에는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83년에는 대

하루 일과 시작과 끝은 참선... "집중의 맛"
중 방문시 국보 사경 본 후 세필 장르 열어
<훈민정음>체 응용한 도장 국새로 지정돼

상을 수상했다. 91년에는 서예대전 운영위원장을, 93년에는 서예대전 심사위원장을 맡았으며, 지금은 그가 키워낸 초대작가만도 30명이 넘는다.

구당 선생의 빼놓을 수 없는 공로 가운데 하나는 종전에 굵은 붓으로만 작품하던 관행을 깨고 세필(細筆)의 지평을 새로이 열었다는 것. 89년 중국에서 열린 교류전 참가자 방중(訪中), 서안의 서예 박물관에서 세필로 베껴 쓴 국보급 사경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글씨다"며 감탄한 선생은 귀국해서 <명심보감>과 <금강경>을 금가루로 세필 사경해 전시회를 열었다. 이를 계기로 서예전에서 세필 부가 생겨나는 등 국내의 세필 장르가 본격화됐다.

요즘 구당 선생의 하루 일과는 참선으로 시작해서 참선으로 끝

난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이 어찌나 좋은지... 참선이란 게 대단한 거야. 참선을 통해 마음을 집중할 때의 그 맛이 글씨 쓰며 집중할 때와 통하는 데가 많아." 그 맛을 안 구당 선생은 제자들에게도 참선을 권한다.

오랜 시간 앉아서 작업해야하는 선생은 등산으로 지친 몸을 푼다. 전국 안 기본 산이 없고, 가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사찰을 둘러볼 때 가장 큰 관심사는 현액과 주련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실망스런 경우가 많다. 선생 자신이 서산 개심사 일주문과 제주도 약천사 대적광전, 문수사 대웅전의 현액을 직접 썼다. 이 가운데 약천사 대적광전 현액은 길이가 6m나 되는 대형 작품으로, 글자를 확대하지 않고 온전한 크기로 써서 새겼다.

"현액 글씨를 쓸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들여 쓰지. 잘 쓴 주련과 현액을 걸어 놓으면 사찰이 마치 살아 꿈틀거리는 것 같거든. 쓴 사람의 마음과 기운이 그 작품에 남는 거야. 그런데 요즘은 기계를 사용해서 작은 글씨를 확대하다보니 글씨가 힘이 없어지고 제 맛이 안 나. 그게 참 아쉬워."

글씨를 잘 쓰는 비결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구당 선생은 먼저 참는 것을 배우라고 말한다. "글씨는 곧 그 사람(書如其人)이라. 겉멋만 추구하지 말고 마음을 닦으며 꾸준히 노력하는 게 제일이야."

구당 선생은 새해가 되면 <금강경>을 전각으로 제작할 계획이 다. 많은 이들이 동경하는 금강경을 한 자 한 자 새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길 생각이다.

"무릇 모습을 가진 것은 모두 허망하다(凡所有相皆是虛妄) 했지만 틀에 새긴 부처님 말씀을 보며 발심할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허망한 일만은 아닐 듯싶어요."

글=박익순 기자·사진=고영배기자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1. 남경중의과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 대학 졸업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석 사 과 정	3년	5명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의학영어교육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1.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2. 주지스님, 지도교사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4년 12월 31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부산·경남 접수처 : 한국한의원(☎ 051)501-0025)

5. 문의처

- 주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02)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